

호남권 제3지대 창당 이번주 최대 고비

대안신당·평화당 창당 공감대 바른미래, 내부 정리 안돼 호남 중진들이 이번주 결론 도출 이달중 신당 창당 선언 계획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오른쪽부터)가 31일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주승용, 최도자, 박주선, 임재훈 의원과 오찬 회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 호남을 뿌리로 하는 소수 야당들의 제3지대 신당 창당이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오는 4월 15일 총선이 치러진다는 점에서 늦어도 3월 초순에는 신당 창당을 마쳐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달 중순까지는 각 정치 세력간의 합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일단,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에 속한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의 제3지대 신당 창당에 대한 공감대는 이뤄진 상황이다. 창조적 파괴를 통한 제3지대 신당 창당 없이는 정치적 생존이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대안신당 최경환 대표와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사실상 제3지대 신당 창당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다. 문제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다.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호남 중진 의원들은 손 대표가 2선으로 퇴진하고 비대위를 구성, 제3지대 신당 창당에 나서자는 입장이다. 지역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젊은 세대와 전문가 그룹 등 중의 정치세력과 우선 통합을 이루고, 이어 대안신당 및 평화당과 단계적 통합을 하자는 구상이다.

하지만, 손 대표가 '버티기'에 나서면서 제3지대 신당 창당은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손 대표는 직접 제3지대 창당을 주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비례대

표 의원 등 당내 의원들이 선불리 탈당하기 어렵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이를 반영하듯, 바른미래당 당권파 및 호남 중진 의원들은 지난날 31일 손학규 대표를 만나 '2선 퇴진'과 비대위 구성 등을 요구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받아내지 못했다. 손 대표는 이날 '우선 청년 정치세력과의 통합을 먼저 추진하겠다'는 입장만 밝혀 사실상 대표직 사퇴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오찬에 참석한 모 의원은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손 대표에 비대위 구성과 2선 퇴진 문제를 얘기했지만 별다른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며 "총선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명확한 입장을 내놓기 보다 열버

리고만 있어 속이 터진다"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호남 중진 의원들은 당당 탈당에 나서기보다는 이번 주까지 손 대표 설득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종인 대안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 측과의 접촉을 통해 제3지대 신당 창당의 그림을 그려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주까지 손 대표와 김 이사장 간의 공감대를 만들어 내고 이달 중순에는 신당 창당을 선언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호남 중진 의원들은 3일 당 밖의 젊은 정치 세력과 전문가 집단 등을 만나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최재천 전 의원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 박

주선의 의원은 "3일 젊은 정치 세력들과 만나 제3지대 신당 창당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말했으며 김동철 의원은 "아직은 시간이 있다고 본다. 어떻게 해서든지 손 대표를 설득, 이번 주 내에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안신당과 평화당도 일단 바른미래당의 내부 논의의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최경환 대안신당 대표는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호남을 뿌리로 하는 정당 간의 통합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바른미래당도 제3지대 신당 창당 없이는 정치적 생존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주 내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총선 라운지

서정성 "남구를 인공지능 인재양성 메카로"

광주 동남갑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서정성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일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을 촉발하는 핵심 동력으로 파격적 기술혁신을 통해 국가 산업구조의 변화를 촉발시킬 것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성공을 위해서 무엇보다 인공지능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예비후보는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사람'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남구에 인공지능 인재양성을 담당할 교



육훈련 기관을 유치해 남구를 인공지능 인재양성 메카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인공지능 인재양성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어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산업과 송암동 CGI센터와 광주실감콘텐츠큐브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남구 산업구조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윤영덕 "노인·장애인 방역 대응체계 구축 최선"

광주 동남갑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광주 동남갑 예비후보는 2일 "감염질환 노출이 쉬운 노인과 장애인 등 주로 집단시설을 이용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과 방역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예비후보는 "양로원과 보육원, 장애인 및 미혼모 시설 등에는 방역 대응 체계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아 시설



이용자들은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집단 발병 우려도 높다"고 강조했다. 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소규모 집단 및 단체시설에 대한 소독이나 방역, 예방 교육 등이 상당 부분 제한돼 있다"며 "국회에 가면 관련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최영호 "경력단절여성 위한 정책·인식 전환 필요"

광주 동남갑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최영호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일 "저출생·노령화로 인한 인구의 급격한 감소 추세로 심각한 지방소멸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며, "국가존립 위기를 막고 여성들의 주체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도과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예비후보는 "21대 국회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등 모든 법령과 행정용어에서 경년녀 호칭



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고 정책인안자들과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전환이 우선돼야 제대로 된 여성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6세부터 2세 유아까지 보육료 지원방식에서 의무교육으로 점진적 하향추진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과 자주적인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

할 일 많은데 ... 늦어지는 2월 임시국회

선거구 확정 등 시급... 오늘 3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4·15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국회가 될 2월 임시국회 개최가 늦춰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난날 30일 2월 임시국회를 연다는 데는 의견을 모았지만, 구체적인 의사일정과 처리 안건 등에 대해선 아직 의견을 모으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조속히 열어 민생·안전 법안, 경찰개혁 법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2월 초순을 지나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을 희망하고 있다. 총선을 두달여 앞둔 상황에서 선거구 확정 문제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결론 내야 할 주요 현안이다.

2월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 윤호덕·한국당 김한표·바른미래당 이동섭 등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3일 오전 11시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2월 임시국회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원내교섭단체 3당 간 협의를 거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4+1'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예산안과 각종 개혁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한국당 내 '양극'이 여전히 남는 상황 이어서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최대한

야당 입장을 존중하려고 한다"며 "야당에서 원하는 의사일정을 제시하면 그것을 놓고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임시국회 개최 시기에 대해 "2월 중순이 넘어야 한다"며 "선거구 확정 문제 등에 대해 (여야 간)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야 국회를 열어 의결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한국당으로선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야권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도 당장의 임시국회 개최에 부담을 주는 요소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2월 임시국회 개최 필요성에 이미 공감대를 이뤘고 선거구 확정도 너무 늦출 수 없다는 점에서 늦어도 이달 중순 무렵에는 임시국회가 열릴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 및 안전 법안, 경찰개혁 법안(경찰청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 확산 추세를 보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같은 감염병에 대응하려면 효율적인 검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검역법의 전면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입법을 완성한 이후 경찰 개혁 비대화를 막기 위한 후속 조치로서 경찰개혁 입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존에 경찰개혁 관련 법안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었지만, '권력 기관 개혁'이라는 문제인 정부 국정과제를 놓고 가지 논쟁이 붙은 상황"이라며 "야당이 입법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난 20년간 14,000여명이 수강한 명강의

불황기에 뜨는 부동산 경매와 재테크 강의

전임강사: 정영수 경영학박사(부동산 전공)

전남대경영연구소 전임연구원
평생교육공로 : "교육부장관상" 수상
MBC-TV방송국 경제특강
공무원연수원 등 500회 이상 초청특강

특 전

자격취득 희망시 국가공인 빌딩경영관리사, 분양상담사, 부동산관리사
분석사 자격취득도록 책임지도하며 수료 후 모임체 결성하여 지도함

강의기간 : 2020년 3월~6월(15주)
정원 : 선착순 50명 마감

조선대 평생교육원

- 부동산컨설팅과 재테크 매주(수) 19시~21시
- 접수처 : 062)230-7700~2

광주교육대 평생교육원(무료주차)

- 부동산 실전경매 매주(목) 19시~21시
- 접수처 : 062)520-4243

부동산강의 및 부동산경매 관련 상담
010-5613-1808 정영수 박사

요양병원, 힐링센터 부/지/매/매

- 풍암동, 화순 전대병원 10분거리
- 현재 한옥식당 및 찜질방
- 계획관리지역 약3000평 (용적율 40% / 100)
- 보존관리지역 약2500평 (편백나무숲, 산책로 조성가능)
- 매매가격 33억5천만원 (용20억포함)

힐링센터 공동투자자 모심

- 개인명의 재산을 법인으로 100% 전환 후 지분 50:50
- 공동대표 등기 후 투자자께서 100% 운영
- 투자금액 13억5천만원 (힐링센터 시설 리모델링 비용)

소유자 : 010-7570-7525
(나주시 남평읍 풍림죽림길 86)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